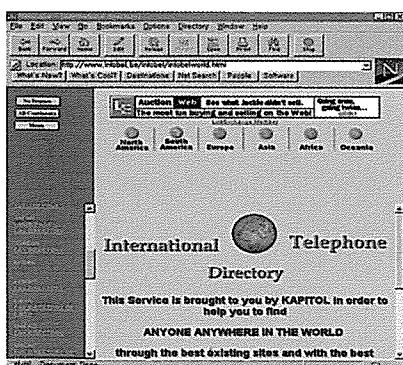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인터넷이 넓어버린 가족이나 친구 또는 그리운 이를 찾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호에서는 사람을 찾아주는데 있어서 새롭고 향상된 방법을 소개하는 해외 유명 사이트를 소개한다.

세계적 규모의 전화번호 화이트 페이지가 등장했다. 여기서 화이트 페이지라 함은 흔히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에 대한 기록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페이지를 말하는데, "International Directory (<http://www.infobel.be/infobel/infobelworld.html>)" 가 그 곳이다.



페이지 중간에 나온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

는 순간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유용한 사이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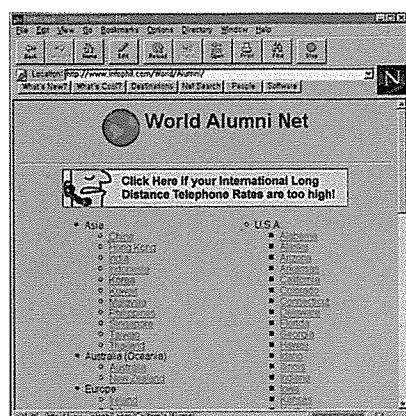
'North America, South America, 그리고 Europe 등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지구본 중에서 찾고자 하는 대륙 이름을 클릭하면 특정 대륙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화면 왼쪽으로 리스트된다.

위의 그림은 'Asia' 대륙을 선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IRAN', 'ISRAEL', 'JAPAN'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국가를 선택하여 찾고자 하는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가족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과 태생에 대한 기록을 소장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그 중에서 뛰어난 두 가지를 고르면 "birthquest adoption adoptee adopt birth <<http://www.access.digex.net/~vqi/top.htm1>>"에 있는 태생 알아보기(Birth Quest)와 "World Wide Registry Matching Adoptees and BirthParents<<http://www.phoenix.net/~aquarian/davids/birth.html>>"에 있는 World Wide Registry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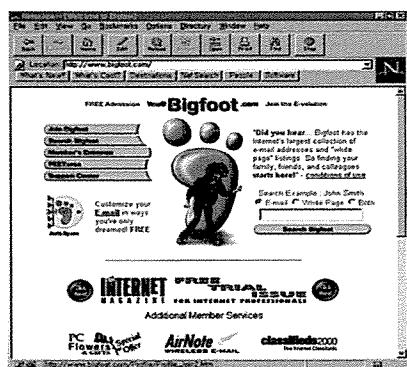
한편, 세계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생을 찾아주는 "World Alumni Net<<http://www.infophil.com/World/Alumni/>>"가 있

다. 단, 이곳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그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한 사람은 등록부터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함부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운용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대인 관계가 좋아서 곳곳에 아는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인 '마당발'과 같은 의미를 갖는 홈페이지가 있다. "Welcome to Bigfoot <<http://www.bigfoot.com>>"으로 가면 다음 그림과 같은 첫 화면이 나온다.

사이트 이름을 나타내는 큰 발탁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입력란에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입력된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는 전 세계 사람의 Email 주소 및 간단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여주는 White Page를 검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인명부로서의 성장을 거듭하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곳이 있다. "Four 11 Directory Services<http://www.four11.com/>"과 "LOBAL MEGA — PEOPLE FINDEREmail — Adoption — Classmate — Girlfriend — Boyfriend — Father — Mother — Friend — Missing Person — Reunion — High School — College<http://www.trendy.net/sites/peoplefind/>"이 있는데 두 사이트 모두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리고 성과 이름 등 다양한 조건을 주어 검색 결과를 얻는다.

안방고속망시대 도래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본격 화상회의·영상전화·주문형 영화감상 등이 가능한 고속통신망이 대형건물에 이어 내년부터 일반 가정에도 제공돼 초고속통신시대가 3~4년 앞당겨 열린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자·자영업자

·인터넷매니어 등은 일반전화 회선보다 처리속도가 1천배 이상 빠른 광케이블 고속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철(李啓徹) 한국통신 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망고도화 특별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2006년까지 10년동안 총 26조8천억원을 투자, 내년부터 전화선을 이용한 고속통신서비스의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 서비스를 내년엔 서울·수도권·부산에, 99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99년 까지 도시지역 대형 업무용 빌딩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2006년까지 전국 전화교환기를 디지털식으로 완전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에 따라 저속통신선에 애를 먹고 있는 컴퓨터통신 애호가, 중소기업인 등의 고속통신욕구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TV화면처럼 자연스런 영상전화와 주문형비디오 서비스(VOD) 등을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2015년까지 전 가정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25% 내외로 축소 조정하고 대신 구리케이블과 무선망을 혼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존 전화망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을 서로 통합하고 오는 2006년까지 약 3백만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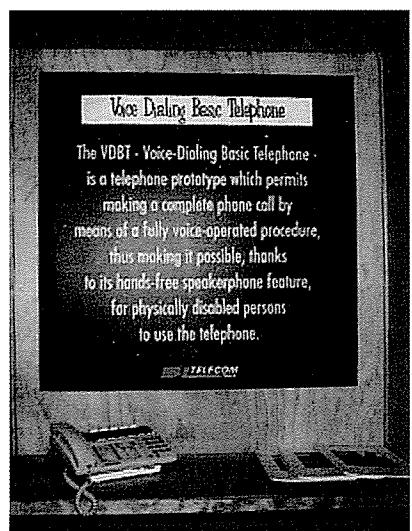
이같은 특별계획 및 일반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와 관련, 약 8조 원의 부족분은 회사채나 외자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국통신측은 밝혔다. 이 계획이 완-

성되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정보통신시장 확대를 통해 투자비의 10배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고속통신망은 기존 종합정보통신망(ISDN)보다 최고 약 2백배 이상 빨리 영상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 고품질 영상전화·전화비디오 서비스 등은 물론 동영상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 서비스는 영상전화를 하면서 일반전화·PC통신 등을 하나의 전화선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 이용료는 1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텔레콤사 보이스 다이얼링 시스템 (Voice Dialing System)

이탈리아 텔레콤사는 지난 6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컴텍스전시회에서 음성다이얼시스템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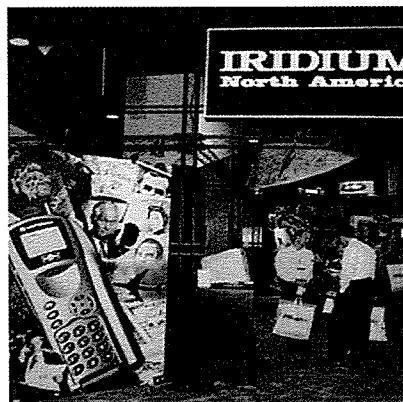
음성다이얼시스템이란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우리집' '사무실'



등 통화하고 싶은 곳을 말하기만 하면 전화를 자동으로 걸어 연결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미 한국 SK텔레콤사에서도 '보이스터치'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부터 상용화된 서비스이다.

음성다이얼시스템이란 이용자가 '*'와 'SEND' 단추를 눌러 음성다이얼시스템에 접속한 뒤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놓은 곳 가운데 통화하고 싶은 곳을 말하면 전화를 걸어준다. 한 가입자가 30곳까지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 다이얼링 시연을 본 바에 따르면 통화하고 싶은 곳을 말할 때 고른 음성이어야만 기계가 인식하기 쉬우므로 기계가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할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날 수 있다.

SK텔레콤의 '보이스터치' 이용료는 한달에 2천5백원.



모토로라의 이리디움 텔레폰
(Comdex Spring '97)

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이용해 세계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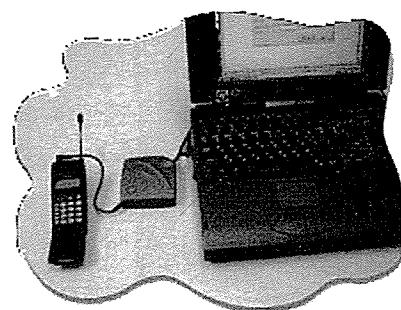
전 세계 도시지역은 물론 밀림과 같은 오지에서도 쉽게 전화를 할 수가 있다. 미국의 통신회사인 모토로라사가 주도하는 이 계획에는 총 50억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이 참여하고 있다. 5개의 인공위성을 멜타2 로켓으로 쏘아 올린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4년 내에 40개의 통신 위성통신을 쏘아 올릴 계획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로켓도 이 계획에 참여한다.

통신위성 이리디움

세계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동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통신위성인 이리디움을 실은 멜타-2 로켓이 미(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기상악화로 3번씩이나 연기된 끝에 마침내 이리디움계획의 5개 위성을 실은 멜타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이른바 꿈의 통신시대를 여는 첫 발을 내디뎠다.

이리디움계획이란 지구 상공에 도합 66개의 위성을 쏘아올려 통신시



티폰과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 등)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PC통신·FAX 전송 등 무선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휴대용 첨단 통신장치이다.

시티폰데이터링커는 최대 2만2천 4백bps의 속도로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노트북컴퓨터의 모뎀과 시티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집에서는 홈베이스(HBS)로 전화선 없이 통신하고 야외에서는 데이터링커와 시티폰으로 PC통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티폰데이터링커는 모뎀이 내장된 컴퓨터면 어떤 기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링커의 가격은 만원이다.

한국 디지털, 카와이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디지털 이큅먼트사는 최근 펜티엄 프로 FX440 칩셋을 장착한 윈도 NT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을 발표하고, 하이엔드 그래픽 옵션과 고속의 처리속도를 바탕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와이에 위치한 활화산의 이름을 본따 '카와이(Kauai)'라는

나래이동통신, 시티폰데이터링커

나래이동통신은 시티폰과 컴퓨터를 접속시켜 이동중에도 PC통신과 같은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는 접속장치(모델명 : 시티폰데이터링커)를 삼보컴퓨터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링커(Data Linker)란 시

제품명으로 출시된 이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은 작년 10월에 한국디지탈이 발표한 Alpha XL과 함께 디지탈사의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현재 한국 디지탈사가 보유하고 있는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제품에는 자사의 64비트 Alpha 칩을 사용한 Alpha XL제품과 인텔사의 펜티엄 프로 칩을 장착한 카와이 등 RISC와 CISC 두 종류의 다른 기종이 있으며, 디지탈사는 이 두 제품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컴퓨터 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카와이'는 디지털의 고성능 알파스테이션제품군과 PC제품군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 디지탈사는 PC제품에서부터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에 이르기 까지 완벽하게 제품 라인을 구성하게 되었다.

싱글 또는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인 '카와이'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은 200MHz의 클럭 속도를 자랑하는 펜티엄 프로 칩을 사용하여 빠른 처리속도, 3D 그래픽 옵션 그리고 높은 확장성 등을 제공한다.

운영체계는 윈도 NT로서 공장 출하시 NT 버전 3.51이나 4.0이 기본적으로 탑재된다. 메모리에는 EDO와 Fast Page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EDO 메모리의 경우에 256MBRkwl, 그리고 Fast Page의 경우는 512MB까지 최대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40Mb/Sec Ultrawide SCSI 디스크 컨트롤러, 2GB 하드 드라이브, 8배속

EIDE CD-ROM 드라이브, 그리고 디지탈사의 최신 그래픽 어댑터 파워 스톰(Power-Storm)OpenGL과 통합 16비트 오디오 및 이더넷 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3D 워크스테이션 그래픽 선택사양을 포함한다.

디지탈사의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카와이'는 MCAD, EDA, 애니메이션과 오락 등의 DCC(Digital Content Creation), 트레이딩(Trading)워크스테이션, GIS(지리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그래픽중심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 실제로 소프트이미지(SoftImage), 오토데스크(Autodesk), 벤틀리(Bentley), 뷰로직(View Logic) 등의 소프트웨어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다른 경쟁제품에 비해 탁월한 가격 대 성능비를 나타낸 바 있다. EDS Unigraphics사와 PTC(패러매트릭 테크놀로지사)의 Pro/ENGINEER와 같은 기술계통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벤치마크 시험을 한 결과, '카와이 200i'의 가격 대비 성능의 우수성이 어떤 다른 경쟁사보다도 탁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새로운 워크스테이션은 휴렛팩커드의 C110, 실리콘 그래픽스의 Indigo2R4400,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Ultra 170 워크스테이션 비용의 1/2에서 1/3 비용으로 경쟁적인 시스템 성능을 제공한다.



〈제품의 특장점〉

1. FX440 펜티엄 프로 칩셋 장착 : '카와이' 디지털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에는 차세대 펜티엄 프로칩인 FX440이 장착되어 한차원 높은 성능과 속도를 제공한다.
2. 투자 보호의 신기원을 여는 PowerGuide 업그레이드 : 보다 강력한 인텔 및 디지탈사의 Alpha 프로세서가 출시되는대로 고객 자신이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디지탈사는 CISC에서 RISC로의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여 강력한 64비트 Alpha 프로세서의 장점을 큰 투자 없이 취할 수 있게 도모함으로써 고객 투자보호를 제공하는 유일한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공급사이다.
3. 고성능 그래픽 : AccelPro, PowerStorm 등의 고성능 그래픽 기능으로 정교한 그래픽 작업이 가능하다.
4. Ultra Wide SCSI 컨트롤러(40Mb/Sec) : 40Mb/Sec라는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는 Ultra Wide SCSI컨트롤러를 장착하고 있다.
5. 5 PCI 슬롯(2 PCI, 3 PCI/ISA), On-Board Network
6. 2 Universal Serial Bus port